



길림성 개혁조치 부분히 실시되고 고품질 발전 동력에너지 넘친다

—올해 ‘관건적인 한수’를 잘 써서 ‘마무리 해’에 더욱 분발하자

2025 년은 ‘14.5’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다. 길림성으로 말하면 이는 한차례 전역에서 결전결승하는 관건적인 절점이다.

올 들어 G331 프로젝트 길림구간 건설이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향촌 진흥, 투자유치, 경영환경 건설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부분히 출범되면서 민영경제 발전이 빈번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가 하면 자동차 수출이 ‘좋은 시작’을 기록하고 성내 문화관광 브랜드 가치가 끊임없이 제고되고 있다...

혁신적 조치 잇달아 출범

봄을 맞은 장백산, 환눈이 아직 완전히 녹지 않았는데 기계 굉음이 벌써 고요함을 찢어놓았다.

G331 프로젝트 길림구간 공사현장에서는 기계소리가 우르릉거리고 트랙들이 실북 나들 듯 드나든다. 이 프로젝트의 가속화 건설은 바로 길림성에서 중점 분야의 관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개혁의 진일보 전면 심화를 깊이와 폭으로 전면 추진하는 진실한 모습이다.

성당위 12기 5차 전원회의는 개혁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9개 중점 전문 프로젝트를 포치하고 425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출범했다. 인기 집결, 산업 흥성, 번방 공고를 목적으로 한 G331 변경(沿边) 관광대통령 건설을 개방하는 관련 내용이 바로 그 중에 포함된다.

교통이 막힘없이 원활해지니 대중이 혜택을 본다. G331의 길림성에서의 발전은 비범한 의의를 가진다.

이 ‘가장 아름다운 도로’는 장백산, 압록강, 두만강과 통화, 백산 등지를 연결하여 ‘아름다운 번강’과 ‘조선족 풍정’의 매력을 일체화함으로써 길림 특색산업 발전의 ‘황금선’을 구축하고 길림 발전의 시공 좌표를 재창조했다.

국가 랑국 안전의 중임을 짊어지고 ‘중국 밥그릇’을 지키는 후원자가 되는 것은 시종 길림성 중점임무의 하나이다.

올해 1분기, 성당위 1호 문건인〈농촌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농촌의 전면 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농업강성을 서둘러 건설할 데 관한 중공길림성위와 길림성인민정부의 실시의견〉이 출범되었는데 향촌 개혁 심화를 전반 과정에 일관시키고 농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고 농업강성을 서둘러 건설할 데 관한 목표를 정조준했으며 현재와 향후 한시기 전 성 ‘3농’ 중점사업을 체계적으로 포지했다.

투자유치는 길림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구현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개혁이 가져온 일련의 혁신 조치는 전 성의 경영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더욱 많은 투자를 끌어 들였다.

최근, 〈길림성 투자유치 종합개혁 실시방안〉이 정식으로 출범되었는데 투자유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유치 산업 위치를 명확히 하며 프로젝트 전체 생명주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전 성 투자유치 사업리념 혁신, 기계 혁신, 모식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기로 했다.

경영환경 지속적 향상

올해 3월, 우리 성은 〈길림성 경영환경 지속 최적화 2025년 중점 행동방안〉을 인쇄발부했다. 이는 민영기업의 발전에 대한 약속이자 ‘개혁 목록’이다.

개혁촉진, ‘단속강화’, ‘경로개통’, ‘기계구축’의 4개 차원에서 착수하여 28가지 중점조치를 실시한다. 기업 관련 봉사효능, 기업 권익 보호 등 방면에서 12가지 개혁 임무를 제출했다. 무분별한 검사, 집벌, 수금 등 7개 분야를 둘러싸고 특별단속을 한다. 기업 혜택 정책 하달과 기업 요구 반영의 2개 경로를 원활히 한다. 공개 조사와 내사, 사찰통보, 무감지 동태 감측 등 7가지 사업 기제를 완벽화한다...

길림성내의 민영기업들이 개혁의 혜택으로 좋은 성과를 따내고 있다. 통원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는 이미 국가 관련 업종의 관건 기준 제정자로 되었으며 여러 중대한 과학기술 성과 전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기업 리사장 장릉은 “현재 우리는 이미 각종 발명특허 40 여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전환률이 90%에 달하며 제품은 국내외의 242개 중점 공정 프로젝트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월그룹은 이미 전국 시장에서 정쟁한 ‘길림 유명 브랜드’의 대표주자로 되었다. 그룹의 리사장 총련표는 “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길림성의 경영환경 덕분이다. 현재 그룹은 산업 규모, 브랜드 영향, 수출입 무역액 등 면에서 모두 전국 동업중 1위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이 끊임없이 제고되고 국유기업의 개혁도 더욱 심화되고 실제화되었다.

‘자지만 분산된’ 66개 성 직속 1급 기업들은 ‘크고 강한’ 12개 기업으로 통합, 재편되었는데 81.8% 감소된 셈이다. 기업 등급은 5급에서 3급으로 압축되고 전체 등급의 기업은 826개에서 542개로 감소되었다...

우리 성의 국유기업은 승격하여 처리효능과 경영품질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다.

일련의 지원 정책이 일선에 직행되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협동발전을 촉진했으며 길림의 전면적인 진흥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는 관건적인 버팀목을 구축했다.

첫 분기에 ‘좋은 출발’을 하다

1월, 장춘국가국제공항은 ‘좋은 출발’을 했바 운수생산 수치가 전부 크게 성장했다. 중국제 1자동차의 해외 완성차 수출량은 2.8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4.4% 성했다. 그중에서도 홍기 브랜드가 특히 눈에 띄는바 6,290

대를 수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25.5% 성장했다.

2월 19일, 국내 문화관광업종 권위 데이터 분석기관인 ‘마이포인트연구원’은 2025년 1월의 5A급 관광지 브랜드 전파력 100강 리스트를 발표했다는데 장백산관광지가 성공적으로 선정되었을뿐더러 동북지역 1위를 차지했다...

길림성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데서 개방은 필수다. 우리 성은 변경(沿边) 근해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기회를 틀어쥐고 기세를 몰아 위풍을 떨치며 개방발전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길림성은 유라시아 대륙교를 연결하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에 처해있다. 최근 몇년 동안 국가의 ‘일대일로’ 창의를 심화됨에 따라 길림성은 이 역사적 계기를 단단히 틀어쥐고 장춘을 동북아 물류중추 중심지로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장춘신구, 훈춘종합보세구 등 중점 개방 플랫폼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국제 교류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점차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넓은 분야의 대외개방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를 내다보면 국내외의 큰 무대에서 ‘길림의 목소리’가 점차 더 우렁차다.

독일 폭스바겐, 프랑스 윌리야, 일본 토요타, 한국 삼성 등 세계 500강 기업이 길림에 투자한 후 더 큰 발전 공간을 모색하고 있다. 화웨이, ZTE, 텐센트, 웨이브, iFLYTEK 등 국내 업계 선두기업의 배치를 서두르고 자금, 기술, 관리, 인재, 자원 등 생산요소가 끊임없이 길림에 들어온다...

길림 기업들의 ‘나아가기’는 글로벌 시장에 힘을 내고 있다. 중차장중계도 객차주식유한회사의 제품은 이미 미국, 오스트랄리아, 브라질, 타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20여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었다. 제 1자동차홍기는 이미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 길림일보

중원 왕조와 고구려의 통속 관계를 증명하는 진귀한 실물—

1,700여년 만에 돌아온 ‘진 고구려 귀의후’ 금인



5월 18일, ‘5·18 국제 박물관의 날’ 길림성 주회장 행사장에서 ‘진 고구려 귀의후’ (晋高句丽归义侯) 마뉴 (马纽) 금인이 집안시박물관에 무상 기증되며 1,700여년 동안 류설되었던 금인이 귀로에 올랐다. 이 금인의 귀환은 고구려에 대한 중원 왕조의 관할을 연구하는 데 진귀한 실물 증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대중들이 고구려와 중원 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진 고구려 귀의후’ 금인은 인뉴와 인신이 일체로 주조되었으며 인문(印文)은 깎아서 만들어졌다. 대면은 거의 사각형에 가깝고 마뉴 형태로, 인뉴는 주조된 후 표면 문양을 조각했다. 전체 높이는 2.8센티미터이고 인대의 높이는 0.6센티미터이며 인면(印面)은 2.4 × 2.3센티미터고 무게는 약 88그램으로서 한진시기 관인의 표준 규격에 해당한다. 인문 속 ‘귀의’는 정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귀의후’는 중국 고대에 소수민족 수령에게 하사된 작위로 그들의 ‘신복’을 인정함을 상징한다.

역사적으로 고구려는 중국 동북지역의 고대 민족지방정권으로서 랑한, 위진·남북조, 수·당 등 세계시대를 넘나들며 동북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랑진시대부터 중국 중앙정부는 내부에 부속된 소수민족정권 수령에게 인장을 하사하는 전통이 있었다.

길림대학 고고학학원 왕지강교수는 “금인은 서진의 고구려 책봉을 실물로 증언한 문서이다.”라고 하면

서 “문헌에는 서진의 고구려 책봉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으나 이번 ‘진 고구려 귀의후’ (晋高句丽归义侯) 마뉴 (马纽) 금인이 집안시박물관에 무상 기증되며 1,700여년 동안 류설되었던 금인이 귀로에 올랐다. 이 금인의 귀환은 고구려에 대한 중원 왕조의 관할을 연구하는 데 진귀한 실물 증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대중들이 고구려와 중원 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금인은 집안시 출신인 금두그룹 김명남 회장과 부인 고금단씨가 중국가택 향향 2025년 봄철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집안시박물관에 무상으로 기증했다. 집안시박물관 객건강 관장은 “이 금인은 우리 박물관 최초의 금제 인감”이라고 하면서 “인장 입관 후 우리는 인장에 대한 보호 관리와 전시 연구를 강화해 이 금인이 빠른 시일내에 대중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근래 길림성은 다방면으로 길림변강 역사에 대한 연구와 발굴을 추진해왔다. 길림성문화관광청 부청장이며 길림성문물국 국장인 송미는 “앞으로 고구려 력사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발굴, 해석 작업을 더욱 중시하고 사회과학기금과 문물보호 전용 자금 등 면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인의 발견과 회귀는 문헌 기록의 결핍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인장 하나로 1,700여년전 백산흑수에서 살았던 고대 민족이 이미 중화민족공동체의 불가분의 구성부인이었음을 증명했으며 중화민족과 중화문명의 다원일체화 구조를 실증했다. / 길림일보



2025 길림시마라톤대회성대히 거행

—3만명 선수 ‘가장 아름다운 코스’에서 각축



플코스 참가자들이 출발점을 떠나고 있다.

만민이 주목하는 2025 길림시마라톤대회가 길림시인민광장에서 거행되었다. 3만명 선수가 송화강변의 ‘가장 아름다운 코스’에서 각축을 펼쳤다.

‘세계육상연합회 골드대회’로 도약한 2025년 길림시마라톤대회는 길림시정부와 길림성체육국에서 주최하고 길림시체육국과 길림시체육총회에서 주관했다. 대회는

마라톤 (42.195킬로메터), 하프마라톤 (21.0975킬로메터), 미니달리기 (5킬로메터) 등 3개 종목을 설치했다. 세계 랭킹 100위권 선수와 세계 엘리트 간판선수 29명

도 초청을 받고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3만명 선수가 북국강성의 송화강 랑안에 아름다운 생대 화폭을 그렸다.

/ 길림일보

C919 국산 비행기, 상해—심수 항공편에 정식 투입!



18일 오전 9시 28분, ‘눈부신 중국홍’(闪耀中国红)으로 도색한 국산 대형 항공기 C919가 집행한 MU5331 항공편이 상해 홍교국제공항에서 리륙하여 약 2시간의 비행 끝에 11시 31분에 무사히 심수 보안공항에 착륙했다. 이는 국산 대형 항공기 C919가 정식으로 상해 홍교—심수 직항 왕복 로선 운영에 투입되었음을 의미한다.

C919 기종이 집행하는 상해 홍교—심수 항공편은 5월 19일부터 MU5351/MU5360 항공편을 매일 왕복 1회씩 운항한다.

한편 출발 항공편 MU5351은 17시 40분에 상해 홍교에서 리륙하여

20시 5분에 심수에 착륙하며 귀향 항공편 MU5360은 21시 30분에 심수에서 리륙하여 23시 55분에 상해 홍교에 착륙한다.

이 항로는 국산 대형 항공기 C919가 처음으로 심수에서 개통한 정기 상업항로이다. C919의 심수—상해 항로 운항은 뱌우계절, 흐름 통제가 빈발할 때 이 항로의 정상물과 운행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동방항공에 따르면 동방항공은 올해 C919 항공기 10대를 왕복 1회씩 운항 계획이다. 그때가 되면 C919 항공기 규모가 20대에 이르게 된다. / CCTV넷